

國費

部	科	名	冊	冊	冊
			正	副	
五	/	/	正	副	冊
			冊	冊	冊

仁
川
府

再刊

交隣須知

二





古 朝
40
17

事物紀原卷之二

典章

律法

刑罰

禮儀

知兵

射法

雜考

買賣

器用

車衣

官制

器用

器用

器用

器用

器用

器用

器用

器用

器用

走獸 一

水族 七

蝗虫 十一

禾黍 十四

蔬菜 十六

農圃 二十二

果實 二十三

樹木 二十六

花品 二十九

草卉 三十二

宮宅 三十三

郡邑 二十六

味臭 三十九

隳貌 四十四

熟設 四十二

買賣 四十四

疾病 四十九

行動 五十四



再刊交隣須知卷之二

對馬嚴原藩士雨森芳洲編 輯

對馬 浦瀬 裕校正增補

周防 中谷德兵衛印 刷

走 獸

麒麟은 성인(聖人)이 개(在)셔야(出)나(出)음(出)느니

虎 虎(虎)랑(랑)이(이) 도(도)석(石)기(기)친(親)골(骨)에(에) 두(두)발(발)을(을) 둔(둔)다(다)음(음)느(느)니

走 獸 交隣須知卷之二

仁川府善書館藏

豹 駱 熊 獸 獅 象 約

駝

豹ヤウ皮ヒ는 발발톱이 다성다성히 잇셔야 쓰음쓰음느니

코세리는 코구영에 귀가 들어 가면 죽는다 하옵느니

수주는 서역에 안다 하느니

중성중예골파개가 제남자를 아라보니 기록하외다

비는 큰곰이니 범버덩터 무덤다 하느니라

약때개 짐을 안이 시렀다

노르란 짐승은 일본에도 잇습는가

鹿

豺

狼

貂

山

水

鹿 ハ皮 사슴은 가죽을 벗겨 부드럽게 다라버리면 쓸데 많스오니

豺 由イヌハ尾 시는 보지 못하여 잇습네다

狼 オカカニハ犬ノ如クナレド人ナ 일희는 개又如되 사람을 능히 해호다 허는니

貂 貂ノ毛ハイカワアタカコオヂル 은 피 털은 귀오 털스오니

山 山ノノ皮ハ 산 耳掩ニコククテ用 산 耳掩 피는 이 엄도 부터 쓰고 옷지여 남스니

水 水ノ毛ハ冬 수 毛屑 얼 피는 겨울의 모선도 흰들고 먼길 갈제 吐 토시 作 하야

水 水ノ毛ハ冬 수 毛屑 얼 피는 겨울의 모선도 흰들고 먼길 갈제 吐 토시 作 하야

羊

양은 제 향에 쓰매 부러질 음느니

駿馬

팔駿馬 노니 프 황천 天下 여 불사

驚馬

뜻 쓸 공은 쓰러 면 여 라

驕馬

불친 공이 용허고 간 매 강 남 서는 온 물 치 기 를 송 향 헌

驕馬

다 데

驕馬

항우의 오 추 마는 어 드 로 간 술 귀 알 지

駁馬

얼 녀 공 루 고 가 는 양 이 뜻 스 외 다

古羅馬

古羅馬 コローマ 고라몬은 거름을 잘 짓습네다

赤多馬

赤多馬 セダウマ 적다몬은 손이올나콩피넨다

烏驢馬

烏驢馬 ウロウマ 오루마에야무라도루면도흔뜻허다

小台星

小台星 コダイセイ 별관자몬은니마여별을부친뜻허외다

四足白馬

四足白馬 シソクハクバ 슌족백이올이돏는양이보기돏스오니

駒

駒 コマ 거둥이민야지르다

牛

牛 ウシ 소는 육축중에공이제일이오니

轅 驢 狐 兔 麝 猫

香

竹ノ子ノ 近ヲ出タノ 黄イ 牛ノ子ノ 角ノ ヲカニセマシ
 籬 麝 香 이 又 난 거 손 는 문 송 아 지 생 又 스 오

驢馬 平 地 를 거 리 가 는 듯 허 여 문 문 허 의 다

나귀 背 負 又 當 나귀 背 負 又 當 나귀 背 負 又 當

여 후 의 게 흥 난 다

兔 叔 父 노 카 오 스 오

麝 香 내 맛 트 니 그 령 향 버 업 스 외 다

猫 背 負 又 當 나귀 背 負 又 當 나귀 背 負 又 當

走 獸 交 驢 須 知 卷 之 二

四

猿 狢 獮 獮 貍 貍

잔 남 이 습 피 우 니 낙 으 네 사 둡 의 습 품 을 터 허 읊 네 다

족 점 이 셴 리 델 노 민 붓 시 라

오 슈 리 는 가 옥 을 먹 거 잘 남 을 허 연 거 습 헌 다 허 읊 니

취 를 치 고 저 허 되 그 곳 을 세 려 아 니 치 는 니

두 랫 취 는 산 에 서 발 뭇 치 둥 기 매 발 뭇 든 사 둡 을 다 랫

취 아 썩 허 읊 네 다

우 터 지 가 쌍 을 두 르 디 회 씬 허 다

角 尾 蹄 鬣 爪 鬚 吠

角^{ツノ}牛^{ウシ}ノ角^{ツノ}ヲナクガヤル^ト石^{イシ}ヲツケ^ルテツケ^ル
 尾^ビ에 손^손 아 나 면 버 담 이 문 어 지 려

畜^축類^류 아 라 도 尾^비 리 치 며 석^석 세 들 才^재 조 마 鬣^이 치 는 니 라

花^화 하^하 케^케 노^노 마^마 노^노 鬣^이 에서 香^향 배 난 다

鬣^이 기 는 총 보 덩 마 늘 매 망 근 파 체 鬣^이 을 허 여 도 爪^자 호 니 라

爪^자 으 로 상 을 허 뷔 고 드 러 오 鬣^이 는 구 나

馬^마 鬣^이 여 부 잇 습 네 다

犬^견 夜^야 사 례 파 문 선 사 둠 을 보 면 吠^吠 는 이 라

驕 毛 噬 觸 駟 驅 馳

馬ウマ의 하 높 カ워니 높 피 ク워라

毛モウ를 쥘 면 レ도와 뵈 ト네

虎コ의 게 ニ틀니 기 ハ로 무 ハ슨 ケ념 テ이 ヰ쓰리 ヨ

쌀 ニ에 ア뵈 レ치 レ면 ハ술 ヲ이 ヲ썩 ッ려 ヰ고 ハ썩 ガ부 レ지 ヰ기 ハ힘 ス외 다

다 ハ른 ハ거 ハ슨 ハ다 ハ갈 ハ쓰 리외 ハ썩 은 ハ갈 쓰리 지 ハ못 하오 리

모 이라 나치 라

馳 チ니 ハ면 ハ로 ハ천 니 ハ갈 다 하음 네 다

騎 駿

무고조심허면 마는 후 낙타리질가 명터업새아니허오
機心

雄 雞

性 馬가 牛 又 치 날 뒤 음 네 다

雌 雞

암 음 험 도 수 젖 습 보 고 는 삭 르 는 니

馬 順

말이 봄이 현 주 로 웃 는 니 라
말이 봄이 현 주 로 웃 는 니 라

馬 死

마 死 죽 었 는 가 보 와 라

馬 走

마 리 듯 따 가 첫 배 업 들 어 젖 따

牛 死

牛 가 아 루 리 죽 어 세 로 터 들 농 수 궤 허 을 가
牛 가 아 루 리 죽 어 세 로 터 들 농 수 궤 허 을 가

走 獸

交 隣 須 知 卷 之 二

六

馬糞

馬糞ハノ 비허ヒ 흑니クニ 거라ケラ

孕

식세빈지오래다ハクセビンチオライダ

産

나아셔즈닷다ナアશે즈닷다

白馬

白馬ハクバ 금평으로 낙양성중에 창기를 뒤고 대로상여왕ハク바 금평으로 낙양성중에 창기를 뒤고 대로상여왕

狸

너허세너허세

熊

곰에 쓸개를 송담이라 하니라곰에 쓸개를 송담이라 하니라

狸

학은 독잡기를 잘 하니 허구현 증성이로다학은 독잡기를 잘 하니 허구현 증성이로다

猿 猴

海 類

龍

蜥 蜴

蠖 蟻

石 蟹

猿猴의 손이 手長人의 模樣又트니라

海類의 고기는 補血한다 허느니라

水族

龍이 오르니 비오개사

되롱놈이나 쓰니 안개 세리라

도마배얌은 적으니 무섬지 아니 허외다

石蟹의 손발을 싸여 먹으면 마시 잇세니라

水族 交隣須知卷之二

龜

거북은 병허니 죽원새시 아니니라
거북은 병허니 죽원새시 아니니라
자라목이 되엇다

蟹

등고분새우로다
등고분새우로다

蝦

게를 잡아 물에 너어두나
게를 잡아 물에 너어두나

螺

조개가 입을 다무엇다
조개가 입을 다무엇다

蛤

생선속에서 진주드렛다
생선속에서 진주드렛다

鰓

고래싸움에서 새우가 등터진다
고래싸움에서 새우가 등터진다

鯨

螺字正音

螺字正音

螺字正音

螺字正音

貝 陸 原

小 螺

青 螺

蟻 魚

鱗 魚

鱗 族

鱗 魚

貝 ヒヨウ 주 コ 어 ワ 오 コ 니 。 라 。

小 チ 螺 ロ 라 。 락 。 지 。 를 。 비 。 락 。 라 。

青 アヲ 나 。 가 。 빛 。 치 。 고 。 오 。 니 。 사 。 가 。 고 。 시 。 주 。 외 。 다 。

蟻 アリ 암 。 이 。 서 。 리 。 쓰 。 니 。 잘 。 가 。 쉬 。 을 。 가 。 시 。 주 。 외 。 다 。

鱗 イロ 글 。 거 。 라 。 락 。 을 。 세 。 비 。 글 。 이 。 업 。 서 。 야 。 도 。 흐 。 니 。 라 。

鱗 ウツ 족 。 을 。 다 。 알 。 기 。 어 。 업 。 솟 。 석 。

물 ウミ 에 。 들 。 노 。 기 。 서 。 석 。 락 。 진 。 거 。 솟 。 붓 。 처 。 라 。

水族

交隣須知卷之二

八

兩字正音
부

兩字正音
리

兩字正音
로

鮪魚

鯉魚

鱧魚

民魚

廣魚

鮓魚

錦鱗魚

붕어
어
뎌
허
여
라

닝
어
물
사
오
느
라
반
찬
허
며
떡
파

농
어
물
회
쳐
라

민
어
로
암
치
를
인
드
러
두
자

넙
치
를
몬
니
여
라

유
어
를
드
물
게
먹
오
니
보
면
먹
혀
서
푸
외
다

금
닌
어
를
낙
사
술
안
주
허
세
안
酒

銀口魚

은구어플낙뜨라가세
銀口魚 어플낙뜨라가세

鮭魚

넌어플씨서라성헌거시니먹어보자
鮭魚 어플씨서라성헌거시니먹어보자

亡魚

앙어는동히고기로서히로도망향앗다고망어라니
亡魚 어는동히고기로서히로도망향앗다고망어라니

魴魚

르느니라

魴魚

방어플저떠라
魴魚 어플저떠라

大口魚

대구는아직나지아니히엇네
大口魚 구는아직나지아니히엇네

黃大口

황대구는플쓰타노아라
黃大口 구를쓰타노아라

木放 一 交隣須知卷之二

乾大口

鯉魚

鈔魚

松魚

海鰻

鱧魚

烏賊魚

乾大口 乾大口 구를 버어 장씩 먹어 먹세

가오리를 오려라 벗테 말니 깃사

상어에 기름을 나 석쉬에 노크 잘 구어라

송어를 밥우의 잘 찐라

붕장은 구어야 맛시 죠호니라

전어를 시장에 가사 서 반찬 허여라

오징어를 벗테 말니여라

古道魚

고 古 コ 道 道 ト 魚 魚 ニ
고 古 コ 道 道 ト 魚 魚 ニ
고 古 コ 道 道 ト 魚 魚 ニ
고 古 コ 道 道 ト 魚 魚 ニ

石魚

조 石 シ 魚 魚 ニ
조 石 シ 魚 魚 니
조 石 シ 魚 魚 니
조 石 シ 魚 魚 니

落蹄

낙 落 カ 蹄 蹄 キ
낙 落 カ 蹄 蹄 키
낙 落 カ 蹄 蹄 키
낙 落 カ 蹄 蹄 키

鮎魚

에 어 기 는 국 쓰 리 면 마 시 나 는 너
에 어 기 는 국 쓰 리 면 마 시 나 는 너
에 어 기 는 국 쓰 리 면 마 시 나 는 너
에 어 기 는 국 쓰 리 면 마 시 나 는 너

鰈魚

일 을 잘 아 니 히 고 생 석 로 써 저 가 는 농 을 밋 쓰 리 식 기
일 을 잘 아 니 히 고 생 석 로 써 저 가 는 농 을 밋 쓰 리 식 기
일 을 잘 아 니 히 고 생 석 로 써 저 가 는 농 을 밋 쓰 리 식 기
일 을 잘 아 니 히 고 생 석 로 써 저 가 는 농 을 밋 쓰 리 식 기

瓶魚

라 허 음 네 다
라 허 음 네 다
라 허 음 네 다
라 허 음 네 다

瓶魚

병 어 입 사 치 적 따
병 어 입 사 치 적 따
병 어 입 사 치 적 따
병 어 입 사 치 적 따

本放 一 交隣須知卷之二

河豚魚

목성연은 장만하기를 잘못하여 먹으면 혹 죽는 나라

鰻鱺

빙장어를 조시여가사오니라

明太

명태는 북어니 함경도 명천사든 태가파가 처음으로 잡

道味

어 먹어서 인향야 명태라 이름하였습네다
又잡은 되미잇스니 회하여 먹세

蟹

가져는 위새름치기를 잘하옵느니라

紅蛤

홍합은 보신허니 신기허호사들이 먹으면 조호니라

라 蟹字正音

海參

해삼은 소를 더 꼬일 하여도 조꼬 회도 무던하오니

石花

심술은 초장씩 먹으면 또 배가 아랫배가 아파나

全腹

전복이 크니 오려 동전복하여 상에 노아라

熟腹

숙전복이 풀니 솟는다

白蛤

백합을 찰조개라 하니

紅螺

홍나물은 소성하여니 물담금소
紅螺는 소성하여니 물담금소

蠃 虫

蟹 虫 皮膚須知卷之二

十一

蛛

거의줄에 푸리가 걸렸파

蜓

은자리나쓰니 국엽허오리

蝶

남의는 싯을 색리당기느니

蜂

벌은 제등을 잘 갖추디

蟪

당낭거침트니 제가 잇씨
蟪 蟪 거침 트니 제가 잇씨 당낭호사보나

蜈

길비는 뱀족지송이라 사롬을 쓸면
蜈 蜈 百 足 之 虫 이 라 사 롬 을 쓸 면 극 키 해 롬 수 의 다

百

노린기는 집에 비둘기를 두면
百 足 家 에 비 둘 기 를 두 면 엮 느 니

足

蚊

蚊ハ는 적어도 소리를 크게 하고 물나면 아무리곤사

몸이과도 솟아올라오르느니

꾸리가 못된 안즈니 곤지럽소외다

등어같은 물벼룩을 자자못허음네다

穴ハ入ハ蛇ハ는 배암이 몇차인고 새둥이 풀난즉 독이대단이

말허오리

올칭이가즈라기구리원다

蝨

이삭에 버티는 곡식에 해를 초스오니

蠅

蠅

박새는 밤에 만 나라 하니 고남제는 가만니 잇스니 고

약혼거시로다

蚤

외쌍이 소리우습소외다

蠃

진디는 개밭에 뚫는 나더러 온 거시라

蝸

물집이 외집이로세

蛭

거머리는 피를 빨라 버는 나

蝨

交隣須知卷之二

十三

蛆

상^ク야^ク구^ク력^ク이^ク나^ク쓰^ク니^ク뱃^ク비^ク버^ク려^ク라^ク

蟻

개^ク미^ク도^ク일^ク년^ク먹^ク을^ク세^ク술^ク장^ク만^ク하^ク야^ク둔^ク다^ク허^ク음^ク네^ク다^ク

蝥

구^ク들^ク구^ク들^ク허^ク는^ク양^ク이^ク사^ク땀^ク는^ク가^ク시^ク꾸^ク외^ク다^ク

蚯

디^ク땅^ク이^ク는^ク저^ク눈^ク을^ク가^ク진^ク들^ク주^ク고^ク가^ク진^ク씨^ク를^ク뱃^ク구^ク어^ク썩^ク다^ク

허^ク음^ク네^ク

蝗

蝗^ク황^ク용^ク이^ク가^ク벼^ク를^ク다^ク먹^ク어^ク쓰^ク니^ク농^ク사^ク가^ク망^ク귀^ク로^ク세^ク

蚘

자^ク벌^ク비^ク는^ク무^ク어^ク슬^ク저^ク리^ク재^ク는^ク고^ク

螢

虫

蟬

蟬

毒

蝟

반의 생이 밤에 사창으로 지나가니 날이 불끈 듯하되다

벌비 먹었소오

구멍이 가모양은 흉히 되듯하여 허혈새 손업느니라

메미는 이슬만 먹고 나무우희서 소리허네

독사의 개물니면 죽기 쉬오니

고슴뚝치가 오그리면 밤송이 주소오니

禾 黍

穀

穀物은 百穀이 다 귀한 거시니라

糧

糧食이 아 리 유 의 허 외 다

糯米

糯米는 糯食을 만 나 허 음 소

米

부른 쌀 노 糲을 수 이 썩 닢 헌 옷 세 糲 먹 여 라

粳米

粳米은 飯 지 여 덕 으 면 조 흐 니

大麥

보리 麥 에 粟 노 아 부 드 럽 개 지 여 라

太

콩을 술 머 라

粟

粟飯 ハ 조밥은 먹기 못치 못하오니

豆

豆醬 ア 醬을 붙세지음소

蕎

蕎麥 ソ 모밀 당수역오면 술이 써음느니

禾

禾稈 コ 이 벼는 지츄렁이 만으니 몽근벼로 주음소

稻

稻稈 チ 벼를 물니여 두엇다가 씨를 딛김세

稷

稷飯 ヒ 피밥은 구수허음대

小麥

小麥 ス 밀을 마라셔 가는 처로 처서 누룩을 따의 음소

水 荏

물세로기름싸서되유문드러
油合羽
油杉
을거름소

眞 荏

솔새기름이고소하고맛나니
藥果
파를지지음소

糖

슈슈남피
白糖糖
숙여드렸다

玉 蜀黍

옥슈슈를써억오면조호니

菘 豆

복두들길너숙우나물이다
云
허음네다

葱 菹

을무는뿌어자시음쇼서

苗

모를을길서니
時方
비를기두리음네다

綠

蔕

護軍謀ヲユクカニ受ルニテヤクテツトノズレテホトクヲキレマス
호군복을먹티이다니실직아니하야도지별안허의다
買職

種

豆

種ヲムクタイテコレ來年ノ春ニホクカマス
씨를잘두어야년년봄의쓰음느니

抽

葉

コト抽ク木ハ早速ウエテコソク
썩은남근즉시심거야죽지안느니
即時

草麻子

コウゴノ實ヲ水ノ中ニサキ物ヲツク
피마조도물중오는사기를막어라
砂器

芽

出

春ニテアニ竹百草ゾ芽ヲ出レマス
봄이되니백초가다다나옴비다
出

核

實

核ヲスニテコレヲ食ハレマス
씨를다버고먹음소
食

耳車

ヤハムギノシテ食フニヨリコトワテ四年ハゴブリアマス
귀리밥을먹으니이런곰년이업소외다

精 麵

酒 滓

釐

菜

茄

眞 菘

조강지처는 물하당이 라 허옇네다
之妻 不下堂

술지검이 언덕이 십니에 부라 뵈네다
十里

비지는 도야 지역이 뛰어터가 옴네다
道野 지역이 뛰어터가 옴네다

蔬 菜

취를 갈 노늘게 치 옴 소
취를 갈 노늘게 치 옴 소

가 자 적 은 미 쓴 미 쓴 허 오 니
가 자 적 은 미 쓴 미 쓴 허 오 니

솔 외 가 서 러 서 윈 배 나 옴 네 다
솔 외 가 서 러 서 윈 배 나 옴 네 다

胡 荻

西 荻

香 蕈

石 耳

芋 蕈

野 葱

蒜 蕈

외가스구나

슈박이
니여셔
속이
복차

표구
는음
식에
니오
연맛
도
조
향
귀
로
온
듯
허
오
니

석
이
를
잘
깨
서
러
국
에
니
음
소

토
관
을
술
머
떡
차

둔
티
는
성
오
로
먹
은
죽
인
우
니
라

마
느
를
늘
노
먹
으
면
별
신
가
독
허
니
라

藥 菜 交 關 須 知 卷 之 二

十七

冬 菰

동야토전지저역음소
冬菰ト油揚ニシテトニシテ

人 參

인삼
인삼又은 약이 세상의 업스니
人參ト又ト藥ト世ト上トコトイニユトト
파연선약이올세
果燃トニ仙藥トイフ

松 茸

송이
송이를 터리는 적삼고 터리는 죽수
松茸トテ우分ハソフソフニウ分ハ
術イテククテニニニニニニニ
죽수어떡게허음소

筍

죽순
죽순은 속키주라느니
竹ノ子ハ草トクフトト
筍

紫 葱

홍총이
홍총이를 써러 술안주허음세
紅葱トイフチニテ酒ノトカトニシテマセク
安酒

薤 菜

부초는 파
부초는 파와 혼거시라
薤菜トハチゲノヤリトトノシテ

山 藥

마는
마는 연도떡고물터
山藥トハムシテホクニカシテ藥種トイフ
藥種도허느니라
材

荒

삼슈뿌리는 약재도 하고 남프나물하여 먹습네다

藜

명아주되는 솔너젓물인드는 거시라

茵

버서스낭게도나고쌍에도나느니라

菩

도라지는 약재도 하고 나물도 하는니라

芹

미나리강회는 도호니라

瓠

박이라도하고 표주라두허옵네다

蕪

순무는 김치도 당근이나

蔬菜 交隣須知卷之二

十八

葛

칠근둔둔이현야비술을허음네다

芥

實

芥子ハ液チメレテ酸ニナケテアケヒマヌ
芥子ハ液チメレテ酸ニナケテアケヒマヌ
芥子ハ液チメレテ酸ニナケテアケヒマヌ

薑

薑生ハ辛
薑生ハ辛
薑生ハ辛

蒿

蒿上ハ飯ツ、アケツ
蒿上ハ飯ツ、アケツ
蒿上ハ飯ツ、アケツ

葵

葵ハ汁コタイアケハハイカクマサオニ
葵ハ汁コタイアケハハイカクマサオニ
葵ハ汁コタイアケハハイカクマサオニ

蔬

菜

蔬菜ハ、イノ野菜チ云フ曹アアル
蔬菜ハ、イノ野菜チ云フ曹アアル
蔬菜ハ、イノ野菜チ云フ曹アアル

蓼

蓼귀는스난거시도호니라
蓼귀는스난거시도호니라
蓼귀는스난거시도호니라

莧

비름은 밭에 나느니라

齊

남이란 물은 일은 봄에 씨 뿌려 먹는다

羊
蹄

소루장이 도록 뿌려 먹는다

菱

말은 새여 먹으면 마시방 뜨니

萱

원추리는 취야 먹는다

酸
漿

신아리는 아희들이 먹기를 도와 허대

藥

본이 면은 맛남 기움도 다 나옴네다

藥

藥經知卷之二

十九

蕨

고사리 陸生 가오

苜蓿

기오목은 심으로는 세며 도테쳐 소금 기름 약 먹으

면도호니라

鷄冠苔

히되는 술안주 하면 무덤허외다

海衣

김은 회초롱에 옷들이라

甘苔

감퇴를 구태는 풀이라 허느니라

海帶

다사라는 기름에 지쳐 먹느니라

海 藻

ヒトシヅク 精進 ノ カイロヤ
물은 소반찬이오니
素飯 飯

卵 菜

コノ ハ ニ ガ セ ユ ヘ ヤ マ シ ヲ ウ ケ ト
은니 물은 니가 성허여야 마시릿습네다

細 毛

カ ス リ ヲ ク リ ト ハ ン ノ イ ソ ム ニ ガ
가스리를 그리도 안이 쓰음는가

牛 毛

ウ モ ノ ハ コ ト ハ ア ヂ ク ニ ダ
우모는 고아 먹습네다

加 士 里

カ シ リ ノ ハ チ ヂ ウ ヘ ナ カ ヤ ウ チ ト ガ
가소리 몇저 울어나 카야 웃던가

蘿 蔔

オ ウ ヲ シ メ ト ウ ニ ハ ニ マ シ ヲ ウ ケ ト
우를 싱으로 먹으니 단마시릿다

南 瓜

オ ウ ヲ シ メ ト ウ ニ ハ ニ マ シ ヲ ウ 케 ト
호박은 무미향다

菘菜

빈추는 김치듯코니

牛蒡

우방은 열양맛인는 줄모드물세

甘藷

예역찬도회

昆布

곤포씨러라

胡蘿蔔

당근도맛업는거시로세

變根

당근추는먹으면알근알근허외다

葱

파가멋단안냐

胡椒

胡椒 ハカケ는 丸 ア コ レ イ マ オ

農圖

田

밭 ハ 타 케 가 肥 아 코 레 이 다

畚

논 은 땅 이 건 후 에 야 도 호 니 라

獸畝

밭 이 랑 이 즈 니 뭇 치 아 니 허 의 다

農

農 件 아 코 이 精 出 레 아 奇 特 아 요 다

栽殖

木 아 가 라 고 이 植 아 니 用 心 아 트 하 라

春 耨 搆 培 耘 刈 耕

耕コト 耨コト 搆コト 培コト 耘コト 刈コト 耕コト
 밋갈기 耨부 搆부 培부 耘부 刈부 耨부

외ア 여カ 욱ハ 거カ 칠カ 머カ 오カ 오カ
 외여욱거칠머오오

기レ 耘レ 밧レ 면レ 벼レ 나 잠 곡 이 나 다 잘 되 리 라
 기耘밧면벼나잠곡이나다잘되리라

복 도 두 면 남 기 성 하 니 라
 복도두면남기성하니라

벼 이 싸 은 벼 가 문 낫 거 든 두 두 러 라
 벼이싸은벼가문낫거든두두러라

도 리 처 를 밧 을 어 야 타 작 을 허 겿 습 비 다
 도리처를밧을어야타작을허겿습비다

씨 호 면 쌀 이 희 여 지 는 니
 씨호면쌀이희여지는니

箠

○

사부러정(精)이하여 달(達)습(習)소(小)...

箕

○

기(箕)를 남(南)사(人)들은 청(淸)이라 하여 읍(邑)네(那)다...

儲

○

제(儲)축(蓄)미(米)가 만(萬)이 잇(有)스니 든(貯)든(貯)허(何)외(外)다...

積

○

좌(積)하(積)든(積)셈(倍)을 비(比)어 사(事)려(慮)라...

取

○

곡(取)석(石)을 거(取)두(取)려(取)려(取)고 시(時)방(方)은 분(分)주(走)허(何)외(外)다...

納

○

관(納)가(家)의 밭(田)치(治)라...

貢

○

왕(貢)성(城)에 조(朝)공(貢)과 고(高)외(外)국(國)사(事)물(物)이 다(多)외(外)얏(矣)습(習)네(那)다...

結實

은갓 열미가 미치니 바람이 아니 불면 죽어올가

結

민거슬 풀기도 어렵고 풀거슬 미기도 어려우니

藥

침주로 쓸셈도 인들고 샅기도 섰와 쓰옵네다

一撮

혼자 밤술해서니 손뺌 당 괴라

一握

혼술 술을 먹기니 야속히외다

空石

빈섬들고 가서 게가 잇서니 벗거오느라

大同米

大同米를 각고 올이게미년부더 작 전허여 밧치옵네다

柿

柿은 익으면 단니라

梨

梨는 먹어서 원허외다

石榴

石榴는 마시니라

柚子

柚子는 대가 즙이 오

大柑子

大柑子는 서리를 마자야 빻치 김스외다

蜜柑

蜜柑은 필갈 견질어로세

橘

橘은 정과 하나니라

龍眼

龍眼은 약재로 회크저역어도 무던히외다

荔枝

荔枝는 강남과 실이라

栢杏

栢杏은 세역느니라

榛

개암을 접사의담아라

櫻桃

櫻桃는 만이 먹어도 허몸지아니호오

林檎

송금이 잘 열니니 가지아오로 거셔오느라

栗

栗은 심으로 먹고 구어도 먹소오

楨

두레는 구사월에 서익으면 두니라

葡萄

포도는 잘 익은 후에 먹느니라

木通實

오름은 서러서는 못 먹느니라

棠

아가외는 속조차 불그니라

銀杏

은형은 구어먹습네다

山椒

산초는 침취에도 비견동합의도 넣습네다

胡椒

호초나무는 보자 못허엿습네다

五味子

오미즈는 물의 담것다가 그물을 먹으면 시니라

梅實

梅實은 당마씨에 열니 음느니

果

과실은 가을에 만습테

椽

돗토리는 흥년에 먹은 거시니라

實

火食은 아니 먹고 실과를 먹는 양이 토셔

蒂

씨지는 열리마다 잊습네다

葩

송이는 한송이 두송이라 세 음네다

果實 一 交隣須知卷之二 二十五

藥

黃藥, 皮는 마시 쓰니라

串

串柿은 어디서 많이 나는고

漆

漆柿은 열어 먹지 못하겠대

李

외앗은 시니라

杏

송구는 비올새 먹지 말라

大

大藥은 주머니 세리 정구나

大藥은 주머니 세리 정구나

胡

桃

干

胡桃은 가뭏말이나 안느다

木瓜

木瓜 木瓜는 구이도 먹을 데다 木瓜

槐實

槐實은 풀드리는 나무 槐實은 풀드리는 나무

樞子

樞子 樞子 樞子 樞子 樞子 樞子

桃

桃 桃은 먹음 죽히외다 桃은 먹음 죽히외다

樹

樹 樹 樹 樹 樹 樹 樹 樹 樹 樹

木

木 木은 첫따루 선 나무를 정조 남기라 하옵네다 木

山

山 山이 비록 높과도 남기 잇서야 조호나라 山

樹木 交關須知卷之二

竹

대는 두가지 이쓰니 무의 큰 거 손의 대요 무의 큰 거

술왕대라 하옵네다

소나무는 집지을새 기둥도하고 널도겨쓰느니라

피남그로 권를 문들 연가 뛰여도호니라

월유 나무는 월궁에 만흔가 시푸외다

첫 나무는 가지가 갈아여 불이 날다 하느니라

다목은 불근을 드리는 거시니라

樺皮

杉木

槐

梧桐

楡

楸

樺皮 ハクニ 皮 ニ 質은 ハ 활을 ヲ 쓰는 ニ 니라 ム

杉木 シノキ 木 ニ 葉을 ヲ 잇기 ニ 나무 ト 云 云 道 ヲ 好 フ 오 스

槐 カキ 皮 ニ 화 ヲ 나무 ニ 는 ハ 잎 ヲ 개 ヲ 조 르 라 세 니 니

梧桐 カキ 木 ニ 葉 ヲ 남 기 그 로 거 운 고 를 잎 그 음 네 다 니

楡 カシ 木 ノ 下 ニ 木 ト 葉 ヲ 안 작 피 셔 히 음 세 니

楸 カシ 木 ハ 나무 중 에 문 문 하 야 무 楸 세 가 다 른 나 무 두

楸 カシ 木 ハ 나무 중 에 문 문 하 야 무 楸 세 가 다 른 나 무 두

樹木

交際須知卷之二

二十七

桑 棧 楊 柳 柑 楓 棕

桐

桑 나무는 잘 인을 그 남은 누에 먹이 음네다

옷 나무로 오솔 내는 니라

슈양은 비올 제 보기 터 옥 듯 스외다

버들 심근 짐이 아 마 양 반 의 집 인 가 시 주 외 다

쓰리는 결이 도 아 뜨 이 기 가 쉬 으 니 라

심 나무는 거운 물 드 리 음 네 다

종 버 털 노 휘 를 민 들 면 도 호 니

側栢

側栢ノ木ハ 松ノ實松ノヤヱア
측박나무는 잣나무又트니라

楮

楮ハ紙ヲス
싹은 종회쓰느니라

藤

藤ハ夏ニ 手ヲヌスレバ
등은 여름에 토시하면 조호니라

柴

柴木ハ炭ノア木ヱ
시목은 남피우는 남기라

林

林ノ下ニ 晝 通イテ 露
수줄아 뛰는 나제 등 비도 이슬이 잇습디

藪

藪ムヲハ水ガ少
덤불은 남기 약간 인느니라

薪

薪木ハ 葉ヲイ
薪나무는 남피엿느니라

樹木

交隣須知之二

二十八

根 枝 板 株 凋 荆 白

蠟

根 근 이 이 엽 엽 스 스 면 면 초 초 목 목 이 이 열 열 가 가 본 본 가 가

枝 지 마 마 다 다 꽃 꽃 치 치 피 피 었 엿 구 구 나 나

板 판 은 은 용 용 이 이 가 가 엽 엽 서 서 야 야 쓰 쓰 느 느 니 니 라 라

株 주 두 두 주 주 라 라 향 향 고 고 나 나 무 무 들 들 세 세 느 느 니 니 라 라

凋 凋 이 이 남 남 기 기 이 이 우 우 터 터 니 니 봄 봄 을 을 만 만 나 나 새 새 념 념 난 난 다 다

荆 荆 가 가 시 시 를 를 담 담 우 우 회 회 연 연 저 저 라 라

白 백 납 납 은 은 광 광 밀 밀 又 又 스 스 외 외 다 다

枳

33

평즈나 무심거 두면 도적이드지 못하느니

丹楓

단풍구경허음세

櫻

벚꽃이호창피엇습네다

鬼箭羽

귀전우란나무는가시가인나

燒木

소목은뚝기로파여서느니라

楠

楠木은여려히가되면돌이된다

老少木

노소나무는절을모르는거시라

樹木

夜讀雜知卷之二

二十九

花 品

花 開

꽃 개치 이러 니니 의가 스스 로오 음네 다

花

꽃 춘봄 의도 리고 혹터 들에 키는 꽃도 잇습 네다

花 落

꽃 떨러 지니 눈오는 듯하 외다

花 枯

꽃 차물 나쓰 니다 른꽃 을화 병의 진주 라

杜 鵑 花

두 조화 는부 터심 거보 음네 다

卯 花

卯 화는 사월 에키 는너 라

芍藥

芍藥ハ白花カアリ
작약은 흰꽃도 잇고 붉은꽃도 잇습네다

薔薇

薔薇ノ花ハ夏ニ
장미꽃은 여름에 피고 빛치 누르니라

菊花

菊ノ花ハイロクニ
국화는 여러가지로 세

鷄冠花

鷄冠花トケイトラハ
계관화와 만도라미는 혼 모양이 올세

蓮花

蓮花チ花中ノ種子ト
연화는 꽃중의 종자라 기라 올네다

鳳仙花

鳳仙花ハ見ルニ
봉선화는 보람 즉 허외다

金剪花

金剪花カケウヰ
금전화가 개우 필 듯 허외다

蓮字正

菊字正

薔薇字正

芍藥字正

花品

花品一 變圖類知卷之二

三十一

葵花

葵^{アユ}花^ハ는^ハ 日^ヒ가^カ 霜^ア이^イ 凍^コ면^면 氷^ヒ가^카 結^ケ고^고 氷^ヒ가^카 止^チ면^면 오^오그^그리^리지^지느^느니

山丹花

山^{サン}丹^{タン}花^ハ 霜^コ날^날 이^이 氷^ヒ생^생이^이는^는 氷^ヒ혀^혀여^여 먹^먹습^습느^느니

紅花

紅^コ花^ハ는^는 赤^{アカ}다^다 氷^ヒ를^를 드^드리^리는^는 거^거시^시라

梅花

梅^{メイ}花^ハ는^는 향^향이^이 振^진동^동하^하느^느니^니라

牡丹

牡^ム丹^{タン}花^ハ는^는 花^ハ中^중의^의 王^왕이^이라^라하^하느^느니^니라

躑躅

躑^チ躅^ヂ은^은 五^오월^월에^에 피^피느^느니^니라

槿花

槿^キ花^ハ가^가 內^내에^에 피^피엇^엇다^다

단 丹字正音

躑躅 躑躅ノ正音

근 槿字正音

芙蓉

芙蓉, 花를 석양 때에 보면 빛치터허오니

射干

본꽃체는 풀 밑 석여 썩지 말되다

杜若

꽃잎치가 저모세이 쓰니 새거오느라

莖

줄기는 일년초대를 줄기라 허옇네다

蕃

번성야이제는 금죽허외다

藥

씻솔은 씻봄우리 속에 인는 거시라

英

꽃부리러기를 벌이 기다리옵디

籬

花盆

查

映山紅

蘇鉄

向日花

籬ヒゲ기ニ에 산양山陽군이 쉬여 잇슴데

植木鉢ヒゲ에 꽃을 심기 짜가 이슬을 맞쳐야 성하음느니

동결동결어서서 다른 남기나니
惟具고이하다

映山紅
영산홍다 여섯 줄이 더 주옵소

蘇鉄은 심글 제 불에 굶나 쇠뿔치들 무더 두면 산다 허

옴비다

히말애기꽃은 히를 열터가느니

非節花

비절화는 시월에
或 후려 나니라

四節花

四節화는 여러
절차가 또러거니

千葉

八重花도 잇고
單葉花도 잇습네다

草卉

草

草이라도 하고
기움이라 두어 습네다

紫草

지초는
紫草는 풀이라

菖蒲

菖蒲는 단
옷날머리에
쓰면 두풍이
없다 하여 습네다

草

交隨須知卷之二

三十二

葦 茵 麻 苧 蓬 艾 芳

아레루가 혼들니니 즙샘피귀가 드럿는가 시루다

기출은 자리를 민드는 거시다

삼은 피싸 남고 그속머는 화약인드니

모시는 밧아나니 그섬질노 모시를 싸 남습테다

다복삭비여라

삭오로 비삽에 들찰허면 병이 업느니라

향기나니아산 음난 초꽃 치연는가 시루외다

菩
草

茅

間
下

莎
草

宮
宅

宮

闕

의 菩 草 기 石 表 들 돌 옷 시 라 도 허 고 창 터 라 도 허 읊 네 다

씨 는 돌 도 문 들 고 초 가 도 네 느 니 라

뜻 은 강 변 의 서 비 여 차 가 자 리 문 들 어 방 에 서 느 니 라

청 명 날 에 깃 초 허 읊 네 다 ○ 잠 으 라 기

宮 宅

궁 은 인 군 친 혁 이 게 신 집 이 라

대 절 은 뒤 우 깊 고 평 장 허 니 라

宮 宅

宮 宅 變 遷 須 知 卷 之 二

三 十 三

家

房

宅

閨

障

戶

大

집의 드리어쓰니 각감하여 견의 지 못하여 올세

방이 뜻뜻하여 외다

어른의 집을 퇴이라 하여 음느니

안방은 녀편네만 출입하여 음네다

장지는 안밖을 종회로 옥검게 부르 음네다

지기는 방에 큰문이 요적은 문을 창이라 하여 음느니라

대청에 나오기 허시고 공사를 혼창하심 데다

壁

벽람벽에 그림을 못쳐라

窓

창을 삭갓쳐라 바람부니 침다

柵

옷거리에 보를 얹퍼우어라

欄

난간에 의지하여 담비새를 팔고 화초만 보와도
織草 味

梁

잇습네다

樑

적은 집에 들쓰가 너모 크면 못치아니 허외다

椽

석가 뒤를 우리나라는 무리목으로 허음스니

宮宅

交隣須知卷之二

三十四

簾 柴 屏 開 庭 樞 基

簾ノキノ 下下 밧テ 그品 거入 술入 드ノ 노オイ 하雨 비ア 를ア 밧テ 치テ 더ア 아ニ 니テ 꺾히 여
 라

柴柴 屏屏 을을 밧다 치다 만만 무무 어어 라

여여 리리 두두 먼먼 도도 적적 마마 을을 새새 시시 니니 부부 디디 문문 이이 다다 터터 라

庭庭 에에 버버 를를 터터 러러 무무 엿엿 사사 가가 저저 벽벽 에에 썩썩 여여 라

樞樞 지지 도도 리리 를를 곳곳 처처 야야 문문 을을 여여 밧다 수수 오오 리

基基 터터 를를 밧다 거거 쓰쓰 니니 집집 을을 세세 우우 꺾히 음음 네네 다

茅屋

초가집은 허마다 배니 괴롭소외다

礎

주춧돌이 허이 상치아 본가 시루외다

階

심을 밟아 화초를 심자 터니 이번 마들의 물속 죽었습

비다

築

담을 쌓고 터지아니 연 비어 상호가 시루외다

磚

벽석을 세라 시니 줄지아니 끈은 나가 못소외다

厨

부엌에서 독을 뒤혀나

竈

부익아궁지는조분데남글만이터치마라
コマヤクノ口ハセバイ盛ニ本チヨケイニ入レユナ

廊

長廊이상하야셔
長廊イ上ハヤシ家者トモテ所トテ業トテアコマイマヌ
行廊이상하야셔
行廊イ上ハヤシ從者トモテ業トテアコマイマヌ
忙

梯

사덕두리노키올나가자
ハレユコケテアコタ

桂

살문을허엇더니잠여셔
スサ戸チコレヲヘタニ家ニテ人ニコタヌコハイタケレマヌ
門

翼

의낭은큰집에뭇쳐지은거시라
コイツチハ大キナイヘコタケテアツクセモノデアニ
翼廊

壁

벽장속을조세이보와라
コゴブチノ内チトクトイボワ
壁藏

石

돌담을긋기쓰라
イレンチチナ堅クツラ
石築

土 築

혹담이 묻어 지더 아 느니

板 塼

판장을 허니 서로 막키여 못스외다

遮陽板子

차양판자를 허니 벗치 아니 든다

都 邑

國

나라는 어진성주가 나서야 외국에도 빛나게 슬베다

京

서울은 인군계신대요

村

촌은 백성이 사느니라

公 私 外 鄉 閭 社 稷

공이 라 하면 공을 하는 말이 라
 公공이 라 하면 公을 하는 말이 라

私는 공을 잊은 후에 하게 함 소
 私는 공을 잊은 후에 하게 함 소

경성 밖 근외방이라 부르네다
 京城外方이라 부르네다

시골에 와 잇는 지 오래니 민망허외다
 市井에 와 잇는 지 오래니 민망허외다

터업은 마을 집을 니른 말이로다
 터업은 마을 집을 니른 말이로다

社는 토요직은 곡식을 주창 선이니 나라를 진수
 社는 토요직은 곡식을 주창 선이니 나라를 진수

허느니라
 허느니라

府 館 獄 倉 市 城

마을은 관원인 곳이라

관은 나라 집이로되다 국수신을 머무러는 집이라

옥은 죄인 가두는 데라

창은 나라 곡식 넣는 곳이로되 큰 고를 창이라

라

저주는 날마다 어치를 흥정하니

성을 높게 쌓아 성허리 업스리라

都邑 史蹟須知卷之二

三十七

塚

성곽 위마다 군사를 지키기 하면 적병이 용수치 못하
塚 城 위 마다 군사를 지키기 하면 적병이 용수치 못하

오리

烽燧

烽화는 불맛 추어 변방 소식을 일시에 통하는 거시라
烽 火 화는 불맛 추어 변방 소식을 일시에 통하는 거시라

境

디경은 표목으로 명한 땅이라
地 境 은 표목으로 명한 땅이라

灣路

에구분길은 지렁길노가세
에 구 분 길 은 지 령 길 노 가 세

陸路

육로로 기대 짐을 낳은 비싸 물의 게 맛길 석계 업수 외다
陸 路 로 기 대 짐 을 낳 은 비 싸 물 의 게 맛 길 석 계 업 수 외 다

水路

수로 비록 십계라도 위험하니 못드로가거저 허용
水 路 는 비 록 십 계 가 도 위 험 하니 못 드 로 가 거 저 허 용
危險

店 橋 驛 站 程

스
네다

길에 올랐더니 영기가 뜻소외다

宿은 길가다가 요괴하는 집이라

驛馬 두마라 든다 하니 범수를 너모 오래하면 뜻치아

니하니라

橋를 갈노았거슨

店은 밤지여 푸는 곳이니
행인들이 어무리가거니

在

京

邑

鎮

場

土

문두리^イ에^レ 못^ハ막^ク은^ナ 나무^ノ신^ヲ을^シ고^ハ가^ニ적^적적^적히^云음^다

서울^{ソウル}사^ノ들^ハ은^말이^조출^하외^다

음^邑내^ハ는^부중^을니^든말^{이라}

진^鎭은^청소^가차^지히^느니^라

장^場은^소오^십니^라두^가서^흥정^하여^오느^니라

土^橋리^는장^마후^는둔^니기^어럼^수오

味 臭

味 臭

臭 氣

甘 味

苦 味

辛 味

酸 味

酸 味

마시 アイゴ 마장맛나외다 オホキニニヨロゴヂル

병식 ニホヒトチ 들맛 カイヂ 다보음 ニホヒトレニ 소

마시 アヂカ 두니 アマカタ 돛스외다 ニヨロゴヂル

쓰니 ニホカタ 피롭다 イケナイ

위우 ウイ 니셔 ア 뜻치 ウキナ 알싸 ウキナ 허다 ウキナ

뜻니 ウキナ 풀만 ウキナ 이 ウキナ 먹 ウキナ 깃 ウキナ 다 ウキナ

시니 ウキナ 숨이 ウキナ 나 ウキナ 음 ウキナ 네 ウキナ 다 ウキナ

味 臭 一 交隣須知卷之二

糞 唾 嘗 嗅 腐 腥 淡
臭

승거무니 승거무니 무미허외다 무미허외다

비리니 안잇끔다 비리니 안잇끔다

써거셔 냄새나는구나 써거셔 냄새나는구나

맛다보니 아문내도엿스오 맛다보니 아문내도엿스오

맛썩니 엿터허온꼬 맛썩니 엿터허온꼬

임으로 새라 먹어라 임으로 새라 먹어라

구린배가나니 꼬를마급쓰 구린배가나니 꼬를마급쓰

尿 臭

小便(シヤウベン)이 나니(나)요(요) 강(강)을 버려(버려)라(라)

香 氣

香(향)을 피(피)엇(엇)더니(더니) 향(향)부(부)가 방(방)안(안)에 진(진)동(동)하(하)외(외)다(다)

屁 臭

放(放)屁(피)를 논(논)의(의) 압(압)력(력)서(서)서(서)지(지)마(마)옵(옵)시(시)요(요)

焦 臭

두(두)는(는) 버(버)가(가)나(나)니(니) 보(보)와(와)라(라)

羶 臭

뜻(뜻)은(은) 버(버)가(가)나(나)니(니) 솟(솟)여(여) 터(터)보(보)와(와)라(라)

羶 臭

노(노)린(린) 버(버)가(가) 심(심)하(하)니(니) 이(이) 물(물)에(에) 노(노)린(린) 기(기)가(가) 썩(썩)젓(젓)나(나)보(보)다(다)

陝 貌

食 飲 含 吐 噴 祇 吮

먹으니 빈부르외다

마시니 3장시원하다

무리시니 절노늑는다

토하니 먹엇든 거시 다도루나온다

쉴어 버리지마옵소

할타 먹으니 다 녹어 업습네다

쉴어 먹으니 씹졸만나 맛습네다

飢

飢

噲

食

咽

塞

醉

供

餉

宴

飢어 보니 질기다

물고 씹지 아니면 무슨 마시 잇수울지

목이 미여 내려가지 아니하와다

취하니 그만 국치음소

드림라 먹어보자

먹이 고삭 주어라

잔치허음세

醒 飽 渴 厭 悅 勸 使
 酒 食

醒 후에 다시 시작하여 먹음
 後 후에 다시 시작하여 먹음

만 이 먹어 버리게 된다
 飯計 이 먹어 버리게 된다

목 마를 제 넘 슈를 먹으면 그면 시원한 일이 염수이다
 渴 마를 제 넘 슈를 먹으면 그면 시원한 일이 염수이다

실 으니 그만 두어라
 實 으니 그만 두어라

기운이 어릴 하니 편안하게 하라
 氣운이 어릴 하니 편안하게 하라

밤을 천하 만이 먹거라
 夜를 천하 만이 먹거라

醉狂 情 정하니 말을 하기 싫스 외다
 醉狂 情 정하니 말을 하기 싫스 외다

蒸 烹 飢 饑 餉 參

參 ハカマ 飢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下人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이바지나허엇느냐
 厚應 ハツ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入 ニ

주린김에먹으니마시
 飢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熟 設

烹 ハツ 蒸 ハツ 烹 ハツ 蒸 ハツ 烹 ハツ 蒸 ハツ 烹 ハツ 蒸 ハツ 烹 ハツ 蒸 ハツ

먹어니물너뭇다
 飢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餉 ハツ 饑 ハツ

熟 設 交 國 須 知 卷 之 二

四十二

熟 湯 湧 爛 燒 煎 炙

구어셔터운길에자시게하야라

선지저먹으엿듯스오니

물에술아엿게하여라

무르게고아두고자서보옵소

물을민우쓰리니겉끓이소사난다

살은물이너허데터내여라

잘난은후에먹습소

淸

물근 물노 정허기 씨서라

焚

불이 뒤여 겹줄을 벗겨 먹자

爨

불새기를 청천이 허여 무르게 밥지여라

炊

밥지여라 그생여 곧 좀자자

烟

니가 솟새 들면 밥에서 뉘어나느니라

醲

술을 비저쓰니 너이 새든 손을 청하여 먹어보세

辨

장안 곧 거 손 처치 하야 먹는 거 시울스오니

高

交隣須知卷之二

四十三

具 火 排 設 旋 熄 凝

又 초와 두엿사 가 손 넘 오 시 거 든 드려 라

火 이 열 스 니 암 짐 예 가 서 불 썬 를 어 터 오 누 라

버 러 노 왓 다 가 그 머 로 드 리 개 허 여 라

주 안 을 거 록 키 초 락 뒤 접 허 시 니 감 사 허 외 다

어 른 의 병 을 극 진 이 시 힘 허 읊 소

불 소 고 다 시 켜 니 고 이 향 다

어 려 쓰 니 력 을 제 곳 처 매 여 라

凍

연거슬터운물어너으면 녹느니라
연거슬터운물어너으면 녹느니라

滅火

산어니러난물이세졌티냐
산어니러난물이세졌티냐

煎

차를잘볶거야마시도커니
차를잘볶거야마시도커니

熱湯

송풍드따라
송풍드따라

買 賣

사러허거본값을주고가져가거라
사러허거본값을주고가져가거라

賣

물어하면값을명당이부름
물어하면값을명당이부름

買 賣

買 賣 知卷之二

四十四

易 價 貨 貸 賂 借 贖 物

박구이주면감바드나다르올가

감부대허거든놀넌감습소

借券어시러오리다

사어준거슨
부속시도르보버는거시울호니라

略이나人ノ知로게허여서는도루여외지아니호리라

빌니시면상치안
厚속사가저오리다

贖物을만아호면
人인정되느니라

給 許 持 受 奉 販 價

주는거술워스양허는고
ヤルモノヲナゼシヤ
 ムルヤハ

許讓
許讓

허락후에는실괴말거시오니
許諾レテカ
 後ハ失期
 ヲトテマ
 ヌ

가진물년이만흐면죽연이흥정이만스오니
持物年
 件多ク
 自然
 死
 興
 多ク

비가바다두어쓰니공의손여원개나다르올가
雨
 水
 公
 手
 元
 開
 雨
 水
 公
 手
 元
 開

맛을니가잇서야아문일이라두되리
味
 有
 事
 有
 事
 有
 事

천경사서귀허게풀러허니흥정이뜻되리
天
 景
 商
 興
 景
 商
 興

갑손노의금대토후야드리오리
甲
 孫
 金
 大
 土
 後
 甲
 孫
 金
 大
 土
 後

買 賣 一 交際須知卷之二

四十五

利 邊 本 操 落 本 請 價 授

利レ邊ノ本コ操キ落ト本レ請ハ價シ授ム
 니를レ녕기코려키허여도코간대루니녕기코지못하음네다스

邊ノ本コ操キ落ト本レ請ハ價シ授ム
 변으로풀면감시적어도변되음네다

및전이적으니니가간대루만쏘릿가

잡아가지고감슬명허음소

본이되매물주들이다시보지아니함음네다

감슬명허야가소

준후에감슬허허음니되는가

稀罕

희한호거시울세

物貨

물화갸도호연살사물이만스오리

分執

논아가지고폴연심게치되느니라

直

갈대두주고사갈소

債

빚주기는이때에무심스외다

推徵

그사물을추져서무리내게도모히옵소

明文

명문을맛히비슬줄서시니라

買賣 交隣須知卷之二

市直

相馬ハイコヤルヤツ
市直
市直
市直
市直

富

富者ガ餘ヤクムレバ子孫ガ榮華ヲ見マセウ
富者ガ餘ヤクムレバ子孫ガ榮華ヲ見マセウ
富者ガ餘ヤクムレバ子孫ガ榮華ヲ見マセウ
富者ガ餘ヤクムレバ子孫ガ榮華ヲ見マセウ
富者ガ餘ヤクムレバ子孫ガ榮華ヲ見マセウ

地稅

地稅ガレバ商賈レバ何ノ利ガアツカ
地稅ガレバ商賈レバ何ノ利ガアツカ
地稅ガレバ商賈レバ何ノ利ガアツカ
地稅ガレバ商賈レバ何ノ利ガアツカ
地稅ガレバ商賈レバ何ノ利ガアツカ

倍直

重段高イニヨリヤツテ利ヲ倍コトクハトスルヤツ
重段高イニヨリヤツテ利ヲ倍コトクハトスルヤツ
重段高イニヨリヤツテ利ヲ倍コトクハトスルヤツ
重段高イニヨリヤツテ利ヲ倍コトクハトスルヤツ
重段高イニヨリヤツテ利ヲ倍コトクハトスルヤツ

家賣

ヤツレバ一年ニ何ヤクムレバ
ヤツレバ一年ニ何ヤクムレバ
ヤツレバ一年ニ何ヤクムレバ
ヤツレバ一年ニ何ヤクムレバ
ヤツレバ一年ニ何ヤクムレバ

洗物

アツグヘバ物ヲ必ッスレバ買アコ
アツグヘバ物ヲ必ッスレバ買アコ
アツグヘバ物ヲ必ッスレバ買アコ
アツグヘバ物ヲ必ッスレバ買アコ
アツグヘバ物ヲ必ッスレバ買アコ

保人

保人ヘアトアヤクムレバヤクムレバ
保人ヘアトアヤクムレバヤクムレバ
保人ヘアトアヤクムレバヤクムレバ
保人ヘアトアヤクムレバヤクムレバ
保人ヘアトアヤクムレバヤクムレバ

買費

在國須知卷之二

四十七

證人

證人 ハカシメテ人ヲ入シテコトヲモシケルコトヲ
證인은 실공 사물을 보여야 미담이 잇습느니라
實

手記

手記 テヲケテトテアコケノトヲコナシテ
手記를 밧고 외상 거 뒤를 허음 소
外上去來

推移

推移 テリヘテニラフニテナイニ
推移이 하야 감중 세 리 업 쓰 니 잇 더 허 올 고

手標

手標 テニテアノ後ニ
手표 가 잇스면 후 일에 어근 날 일이 업 소 오 리
標

會計

會計 ケツケツケツ
會計 亨 음 세

推尋

推尋 テリテ
推尋 허 잇 습 네 다 나 소 리
受取 허 잇 습 네 다 나 소 리

先捧

先捧 テニテ
先捧 亨 음 소

計減

計減 ヒトトシ 허엿습네다

移計

移計 ヒトヲヤ 허체

未収

未収 ノコリ 가만스외다

異捧

異捧 ヒト 허엿습네다

過給

過給 ヒト 허엿다

換錢

換錢 ヒト 허야쓰음네다

至賤

至賤 ヒト 허단말은 열 허단말이라

瘰

瘡

喘

甦

躑

喘

疥

瘰癧 病ヲナキトシテ 誠ニ 珍重ニオケル
나으니 果然 及부외다

瘡 イ 양그러쓰니 다 仕合ア 허외다

喘 病 喘 급현대 マ 만이 누엇소

甦 コ 되새어나니 ハ 지심지인 ア 이로다

躑 カ 좃치기나니 レ 병이 イ 나으리다

喘 香 서를초고 ヲ 공본들 ヲ 병을 ガ 마음대로 ノ 호가

疥 ム 음은 セ 놋의 チ 게오루니 カ 민망하다

疾病 交隣須知卷之二

四十九

痺

싹씩저쓰니 관계 치아니허외다

癩

어루러기는 혈조 허고 부동 으로 나느니라

痺

생씨가 마려워전디지 못허울세

脚
麻

다리가 저리니 부풍 증인 가시 푸외다

癩

버짐은 마려워 못전디움네다

中
風

중풍 노인 에 게 혼허데

喉
痺

목구멍진무르는증어 장음 외다

消 渴

消渴 金 渴 症 木ナ其好ニマス
全 渴 症 木ナ其好ニマス
渴 症 木ナ其好ニマス
全 渴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風

癩 風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風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風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風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亂

癩 亂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亂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亂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亂 症 木ナ其好ニマス

眩 暈

眩 暈 症 木ナ其好ニマス
眩 暈 症 木ナ其好ニマス
眩 暈 症 木ナ其好ニマス
眩 暈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癩

癩 癩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癩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癩 症 木ナ其好ニマス
癩 癩 症 木ナ其好ニマス

이 라

腫

腫 症 木ナ其好ニマス
腫 症 木ナ其好ニマス
腫 症 木ナ其好ニマス
腫 症 木ナ其好ニマス

疾 病

交 隣 須 知 卷 之 二

五 十

瞽

金明의 단청구경이 올세
齊鏡丹靑

一目

片目인사공을 앵두라 허용네다
片目인사公을 앵두라 허용네다

啞

병어리는 말을 못하니 암암야야 흥네
病어리는 말을 못하니 암암야야 흥네

斜眼

눈을 썩기는 이 편보는 거시 첫편 보는 듯허외다
눈을 썩기는 이 편보는 거시 첫편 보는 듯허외다

眼赤

눈이 붉그던 보기사 남수오니
눈이 붉그던 보기사 남수오니

眼膜

안막이 마리워쓰니 분명이 보지안는다
안막이 마리워쓰니 분명이 보지안는다

傷寒

상한은 생을 만이 버연 난느니라
상한은 생을 만이 버연 난느니라

冷胸

冷胸가슴은 瘰癧기어 업수외다

腹廻

腹廻은 비를 덩기어 언난느니라

經水

經도가 순하여 야 임된를 잘 한다음비다

痢疾

痢疾은 습열노나느니라

鷄瘡

鷄瘡은 이 발사며나서 절통하외다

外感

外感은 발산이 옷을이외다

痰

痰이 성하어나 인양하외다

稜
毒

모난데가 신의 리 리 여 티 훈 이 난 다
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スレバ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スレバ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スレバ

帶
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帶下
帯下ハ女中ノ元氣ヲ敗ルニシテ

時
病

염병은 전염 허미 무염 수 외 다
ハヤク病ハカタルニシテオツクニカタルニシテ

頭
屑

머리에 비듬이 많이 석히 가 무는 듯 시 마 렷 다
アトニムフケヨ多クテハヤクニシテ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スレバ

癢

마려운데 물이 우글그면 시원 허니 라
カユイ處ヲチチツクカケバ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스レバ

咳
嗽

기침이 심 허니 엇 씨 호 고
カキムニシテハナニトモカクノコトヲ모토クニ草履ノスレバ

面
毒

얼굴에 종 단 이 나 니 념 터 스 럽 수 외 다
カクノコトヲモトクニ草履ノスレバ

疾病 痘腫須知卷之二

五十二

癡

癡

어릴업는놈을그리조공마음소
어릴업는놈을그리조공마음소
어릴업는놈을그리조공마음소

頭痛

머리암몬세는목침을베지말고
머리암몬세는목침을베지말고
머리암몬세는목침을베지말고
머리암몬세는목침을베지말고
머리암몬세는목침을베지말고

惡心

악심증은괴역하여나느니라
악심증은괴역하여나느니라
악심증은괴역하여나느니라

龜背

곰장이는어려슬제재가상하야된다허음배다
곰장이는어려슬제재가상하야된다허음배다
곰장이는어려슬제재가상하야된다허음배다

救病

병구완허리와쓰니병인을잡서우지마오
병구완허리와쓰니병인을잡서우지마오
병구완허리와쓰니병인을잡서우지마오

氣絶

기절허엇다가도로써여섯숨배다그니
기절허엇다가도로써여섯숨배다그니
기절허엇다가도로써여섯숨배다그니

調攝

미리조성을허면무슨병이날가서푸온가
미리조성을허면무슨병이날가서푸온가
미리조성을허면무슨병이날가서푸온가

矮子

一寸ボウケニナリトナリトナリト見ルニナカレイ
난장이를 춤을 취고보니 우습다

縮脚

イザハハイニキアコロタテアルキマス
안굽방이는 궁둥이로 문춧새터둔니움네다

胸痛

ムチノイタムチ 胸腹痛이라 허움네다

別足

キビスノチイモノ赤土チアムヤウテト云フ雷ノヤウアゴザル
동동바리가 진흙밭 듯흐단 말과 비슷오

六指

六指ハアヤレカ生レ甘マレタ
육손이는 꼬이허게 심겅슴네다

胞衣

エナチ火ニ焼クト申レマス
뒤를 불에 굶은다 허움네다

慈

キヤケハ尾カケアア
점뱀이는 꼬기가 흥허니라

噉

피기가나니 물을 써오나라

噫

트림은 과식하면 나느니라

涎

침은 사람의 진액이라

侍

侍病을 잘하여야 병환이 쉽게 나으시리라

宿

숙병이나 나니 더하기 어렵소외다

稱

稱病마음소

癩

紅癩은 언제 갖는 지 모루는
兒女회두잇티라

回春

快氣クワイキハサレマレタ
回春クワイキハサレマレタ

行 動

行イリリリ一ヒト里リ積ツキサマレタ
行イリリリ一ヒト里リ積ツキサマレタ

次ツギ十ジュウ

울주거이리오노라
울주거이리오노라

나터서서노인노인대접대접하야라
나터서서노인노인대접대접하야라

가시니연하야하음네다
가시니연하야하음네다

然シカレ

도라간다하시니전송하러가음세
도라간다하시니전송하러가음세

還 進 退 儀 來 驚 擾

도라오거든즉시초차주옵소
 카ハッテアキタラハ早速アテテ下サレ
 即時

나아가려는거시울스오니
 スレテアキユルガ尤アゴザル

무터가오나허물마옵소서
 退アユキマスレテ物ナカレンマス

전송하여떡이시니감격하여허옵비다
 儀送チテアテマシニ感キテアハサス
 威儀

오라고하시니속기가게허오리다
 アイルトアハサシニ速キガゲアハサス

놀나운마음이가지지못허외다
 驚タム心マウイガシズケテ外ダ

요란허니말개금허여라
 ナラシムニ止メテ禁ムベシ

擾亂

逐 避 隱 趨 逃 藏 隨

쫓^オ차^フ가^イ서^フ계^ウ우^ク잠^어어^키찾^이습^마네^다 모음 中

피^難하^야당^기니^부의^의쫓^타치^마음^음소^소

숨^숨이^이둔^둔니^니다^다가^가놈^놈보^보기^기를^를시^시터^터하^하드^드라

들^들어^어가^가서^서달^달녀^녀여^여도^도루^루터^터려^려오^오느^느라

도^도망^망하^하여^여두^두려^려나^나니^니잠^잠을^을설^설이^이업^업스^스외^외다

공^공추^추어^어두^두엇^엇싸^싸가^가설^설새^새어^어내^내여^여라

사^사리^리가^가궤^궤하^하되^되다^다리^리압^압퍼^퍼서^서터^터질^질밧^밧게^게업^업습^습네^네다

尋

逢

向

延

登

降

出

尋アハル 次ツギ 동トモ 새サ 씨シ 니ニ 잘ヨ 만マ 낮ナ 소ソ

만マ 나ナ 보ボ 고コ 빛ヒツ 정テイ 을ヲ 생シヨウ 각カク 허ヘ 드ド 라ラ

이コレニ 리ニ 향コト 허コト 여ニ 와ニ 쓰ニ 니ニ 必キヤク 필ニ 경コウ 무무 손손 일일 이이 인인 는는 가가 시시 푸푸 외외 다다

마マ 자ザ 올オ 터テ 안ア 치チ 고コ 待マツ 더テ 접ケツ 허ヘ 시シ 니ニ 寬クハシム 안ア 심シン 치チ 아ア 니ニ 허ヘ 외외 다다

올オ 나ナ 와ワ 안ア 거ケ 라라

下シタ 리リ 오オ 시シ 니ニ 又マタ 부フ 시シ 오オ 리리 다다

나ナ 오オ 시シ 니니 受ウケ 고고 몸몸 소소 외외 다다

行動

交隣須知卷之二

五十六

入 過 步 律 俯 仰 舉

動

入 アテイアチレアイマ
드러와게시닛가

스 ズレマ 지난일을이 バチレ애기 ム삼아 イロマ허음세

거 ケ들을 ク천 ケン천이 ケム것 ム습 ム소

빈 ヒ회 ヒ하야 ア달 ツキ빛 イロ출 ツキ구 モノ경 ヒ허 ム음 セ세

구 ク버 ニ보 ニ니 シ아 カ타 ク다 ク보 ム음 ネ네 ダ다

우 ウ러 レ러 イ보 テ지 レ못 マ허 ム느 ニ니 ラ라

거 ケ동 ム구 ク경 ガ가 セ세

舉動

出仕

出仕^{ナシ}レ^テア^ラハ^シニ^ニ感^カ歎^{ソク}シ^テ外^トニ^ニ出^デル^{コト}ヲ^シマ^ス

出入

出^デル^{コト}ヲ^シマ^スニ^ニ入^リル^{コト}ヲ^シマ^ス

陵幸

陵^ニ幸^シル^{コト}ヲ^シマ^ス

還宮

還^リテ^宮ニ^ニ入^ルコト^ヲシ^マス

玉

行 動 交 際 須 知 卷 之 二

五十七

正誤

- 三 丁ヲ三行 誤 幸鳥ハ鳥ノ誤 ○十三 丁ヲ四行 誤 ハ鳥ノ誤
- 七 丁ヲ五行 誤 幸ハ吾ノ誤 ○四十三 丁ヲ三行 誤 幸ハ吾ノ誤
- 十一 丁ヲ三行 誤 ハ鳥ノ誤 ○四十三 丁ヲ五行 誤 幸ハ吾ノ誤
- 十一 丁ヲ二行 誤 ハ鳥ノ誤

再刊交隣須知卷之二

終

寄版 14493



再交隣須知卷之二 追正誤

○三	○九	○十七	○十九	○廿一	○三十八	○四十三	○四十八	○五十二
丁	丁	丁	丁	丁	丁	丁	丁	丁
才	才	才	才	才	才	才	才	才
四行	三行	四行	四行	三行	七行	二行	四行	七行
是	三	世	知	叶	欠	盆	喜	一
〃	〃	〃	〃	〃	〃	〃	〃	〃
是	三	世	知	叶	次	盆	喜	一
〃	〃	〃	〃	〃	〃	〃	〃	〃
誤	誤	誤	誤	誤	誤	誤	誤	誤



